

---

# 경산지역의 원삼국시대 문화: 소국 형성과정에 관하여

---

이성주  
경북대학교

---

## | 목차 |

- I. 머리말
- II. 문제의 제기
- III. 접근의 관점
- IV. 점유의 역사와 의례 경관의 변동
- V. 경산지역 국의 형성과 성격
- VI. 맺음말

# 경산지역의 원삼국시대 문화: 소국 형성과정에 관하여

## I. 머리말

주지하다시피 경산은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나오는 押督國 혹은 押梁小國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땅이름과 연결되어 이 지역 고대 물질문화는 매우 선명한 역사적 연고를 지니게 되는 셈이다. 게다가 삼국시대 고층이 군집해 있는 임당 구릉지가 오랜 기간에 걸쳐 발굴되어 원삼국~삼국시대 지배집단의 분묘와 주거, 4세기 전반으로 추정된 토성(한빛문화재연구원 2018), 점토대토기 환호 등이 확인됨으로써 이곳이 초기 철기시대부터 6세기까지 이어지는 소국의 중심지라는 생각이 폭넓게 받아들여져 왔다. 다른 어느 지역에 비해서도 경산지역은 많은 유적 발굴조사가 진행되어 고대 압독국의 실상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경산지역의 원삼국시대에 관해서도 고고학 자료가 상당한 수준으로 축적되어 있다. 압독국의 중심지로 알려져 있는 임당 구릉에서도 당시의 목관묘군과 취락의 양상이 확인되어 소국 형성에 관한 논의가 진행된 바 있다(이희준 2004; 장용석 2007, 2012; 정민 2012). 최근 원삼국시대 전기에 속하는 특출한 수장묘, 양지리 1호분이 발굴 보고됨으로써(성림문화재연구원 2020) 이 시기 경산지역의 수장에 관한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다(김민철 2020). 이처럼 경산지역은 그동안 축적된 고고학 자료를 토대로 원삼국시대의 연구 특히 소국 형성과 관련된 논의도 손쉬울 것 같이 보이지만 실은 설명하기 어려운 점도 숨어 있다.

경산지역 소국 형성기의 고고학적 논의가 어려움을 느끼게 되는 이유는 두 가지로 파악될 수 있는 듯하다. 첫째, 경산지역, 특히 임당 일원에서 이루어진 수많은 발굴성과에도 불구하고 고고학적 조사가 불충분하여 아직 알려지지 않은 자료의 공백이 있고 그래서 여전히 전체적인 양상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둘째, 경산의 고대 물질자료를 보는 우리의 관점에 미흡한 점이 있어서 보완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 발표문에서는 먼저 경산지역 소국의 형성과 발전의 논의에서 자료적·개념적 문제점을 지적해 보고 대안으로서 새로운 접근의 관점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고고학적 문화의 개념을 확장하고 재정리하여 한 시대의 문화를 파악할 때 당대의 물질적 양상뿐만 아니라 과거로부터 누적되어 온 문화경관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경산지역 인간집단 점유의 역사를 파악해 보고자 했다. 원삼국시대로 넘어가는 시기의 유적들이 형성되는 과정을 통해 소국형성의 실마리를 찾고자 했다. 그리고 끝으로 목관묘와 피장자의 정체성에 관한 논의를 통해 소국의 조직적 특성에 대해 간략히 언급하고자 했다.

## II. 문제의 제기

경산지역 소국 형성의 발전에 관한 논의에서 문제가 되는 것으로 본 발표자는 먼저 발굴조사를 통해 확보한 고고학 자료가 가진 한계점에 대해 먼저 언급하고 연구 관점의 전환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그간의 연구는 어찌 보면 경산지역의 변동을 지나치게 임당유적군의 자료에만 의존해 왔다는 문제점이 지적될 수 있고 나아가 소국의 성장 배경으로 너무 일방적으로 신라의 영향을 강조해 온 점도 극복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된다.

첫째, 이 지역 고고학 조사자료가 지닌 문제점이다.

원삼국시대 소국의 형성과 발전을 설명하려 할 때 그간의 임당지역 발굴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만으로는 몇 가지 어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임당 구릉지에서는 환호로 둘러싸인 초기 철기시대 의례의 중심지가(김민철 2011; 하진호 2012) 발견되고 원삼국시대 소국 지배집단의 주거와 분묘군이 일정한 거리를 두고 구성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이런 점에서 원삼국 초기부터 임당지역이 소국의 중심지 즉 국읍의 소재지로 보는 것이 무리한 판단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간의 발굴자료를 살펴보면 소국의 중심지로 보기에는 미흡한 점을 찾을 수 있다. 첫째, 최고의 수장묘가 아직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임당 목관묘군에는 주요 청동기와 철기의 부장양상으로 보아 상위 위계로 위치 지을 수 있는 목관묘가 섞여 있기는 하다. 그러나 매우 특출한 부장양상의 수장급 무덤이라고 할만한 것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알려진 당대 최고 수장을 위한 매장예의 방식이 따로 있었다고 보는데 그러한 방식으로 매장이 이루어진 무덤이 확인되고 있지 않다. 오히려 그와 같은 수장묘는 임당지역과는 상당한 거리를 두고 있는 양지에서 거의 단독으로 발견되고 있는 점은 주목해야 할 현상이라고 생각된다.

둘째로는 원삼국시대 목관묘 단계(서기전 2세기 중엽 ~ 서기 2세기 중엽) 다음에 오는 목곽묘 단계(2세기 중엽~4세기 후엽)의 자료가 충분치 않다는 점이다. 물론 목관묘군과는 구간을 달리하여 3~4세기의 목곽묘가 발견되기도 했고(김대욱 2020), 고총 직전 단계 목곽묘 양상도 파악되었다(김용성 1966). 그러나 해당 목곽묘 단계의 자료는 얼마 되지 않으며 한 세대를 대표하는 최고 엘리트 즉 수장 무덤은 찾아보기 어렵다. 주지하다시피 목곽묘 단계의 수장급 매장예는 매우 특출하며 소국의 중심고분군에서는 수장묘가 누세대적으로 점유해간 공간적 배치패턴이 드러난다. 하지만 당대 중심고분군에 나타나는 수장묘의 분포패턴을 임당유적에서는 볼 수 없다. 경산분지 내 도처에서 이루어진 발굴조사 자료가 적다고 할 수는 없는데 목곽묘 단계의 고분군 자체를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은 하나의 의문이다. 이점 경산지역 원삼국시대 후기문화를 이해하는 데 걸림돌이 아닐 수 없다.

셋째, 소국의 형성과 변천을 보는 관점의 문제이다.

우선 지적되어야 할 문제는 압독국의 성립과 성장 과정을 임당유적에 초점을 맞추어 혹은 지나치게 의존하여 설명하려 한다는 점이다. 물론 중심지의 규모와 기능, 그로부터 영향력과 그 범위를 파악하는 것은 소국의 성격을 파악하는 데 중요하다. 그러나 소국이라는 정치체가 작은 규모이긴 하지만 중심지 그 자체의 양상과 변화만으로는 소국 전체를 이해하기는 어렵다. 특히 압독국 형성 시기의 변동은 임당유적을 통해서만 설명하는 것은 한계가 크다. 경산분지 전역, 혹은 금호강 유역 일원의 경관 안에서 소국의 중심지가 어떻게 발생하고 이후 어떻게 발전하는가 하는 문제가 논의될 필요가 있다. 특히 임당 구릉지는 초기 철기시대 직전까지는 점유가 없었다. 초기 철기시대의 점유도 주거나 분묘군의 조성이 먼저 이루어진 것은 아닐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소국 중심지

의 형성으로서 임당 구릉에 점유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과정은 금호강 중류 일원, 경산분지의 전체 경관의 변화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림 1) 원삼국 전기 임당 유적 목관묘의 군집과 그 분포(정민 2012에서)

임당유적은 많은 구간이 발굴되기는 했어도 전면 발굴된 것이 아니다. 구간과 구간 사이의 미발굴지를 포함하여 시굴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곳도 있다. 즉 구간과 구간 사이에 어떤 유구가 분포하는지 파악되지 않은 부분도 많다는 의미이다. 임당유적에 초점을 맞춘 연구에서는 목관묘군이 분산되어 분포하므로 이를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2개, 5개 혹은 그 이상의 군으로 나뉜다고 한다(김용성 2000; 이희준 2004; 정민 2012). 각 군을 조성한 집단을 축조집단이라고 하면서 사회적으로 구분되어야 할 어떤 집단, 혹은 중심지가 형성되면서 임당 구릉 인근에 집중하게 된 여러 (지역)집단으로 간주한다면 타 지역에서의 소국 형성과 비교해서 특별한 측면이 있다. 특히 목관묘 단계에도 임당유적 외에는 목관묘가 발견되지 않는 현재까지의 조사 현황을 임당 국읍을 중심으로 한 지역집단의 통합으로 이해한다면 역시 타지역의 양상과 비교하여 의문이 제기되지 않을 수 없다. 원삼국시대의 문화변동에 관한 논의에 포함되는 문제는 아니지만 압독소국의 변동을 신라의 영향력에 의한 것으로 보거나 압독국의 발전에 신라에의 복속이 중요한 계기로 작용했다는 설명도 그 타당성을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임당토성의 축조나 압독국 수장묘의 변화를 신라의 영향으로 보려는 입장에(이희준 2004; 이재홍 2009; 장용석 2012, 2016) 대해 다른 관점의 논의가(김대환 2012) 필요하다는 것이다.

### Ⅲ. 접근의 관점

고대 경산의 문화가 어떤 것이며 그것을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 무엇보다 그에 관한 역사기록을 찾을 수 없으므로 이 지역 원삼국시대(BC100~300AD)의 문화에 다가가려면 경산에 남아 있는 물질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유물·유적과 같은 물질자료를 통해 과거 사회와 문화를 이해하려는 고고학에서는 문화가 과연 어떤 것인가 하는 질문을 두고 고심하지 않을 수 없다. 전통적으로 고고학자들은 문화가 어느 시대, 어느 지역에 속하는 물질문화의 특징적 요소들을 모아놓은 집합과 같은 것으로 생각해왔다. 이러한 개념은 서로 다른 시기와 지역의 문화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데는 매우 적절하지만 한 시대의 문화가 다른 시대로 바뀌어 갈 때 그 변동의 양상을 파악하고 그 이유를 설명할 때는 효과적이지 못했다. 가령 어느 지역에 환경이 변하거나 사는 인구가 늘어날 때 그에 반응하여 문화는 변하기 마련이다. 이처럼 변화의 요인이 발생했을 때 문화의 변동이 왜, 그리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하기 위해 고고학자들은 문화를 여러 요인과 기제들이 복잡하게 연결된 체계로 생각하게 되었다.

문화는 변화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듯하다. 특히 빠르게 변화하는 오늘날의 세계에 살고 있으면서 우리는 한 세대가 다하기도 전에 지금의 문화는 예전의 문화가 아니며 사람들의 삶의 방식에서 무언가 큰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물론 전통사회에서는 문화의 변동이 그렇게 빠르게 진행되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수백 년의 오랜 세월 작은 변화가 누적되거나, 문화체계의 안팎에서 변화의 큰 동기가 발생하면 변화는 급격히 진행된다. 이러한 급격한 변동과정에 대해 체계 이론가들은 어떤 문화라도 돌아설 수 없을 만큼 변화가 진행되면 완전히 다른 문화체제로 넘어가게 된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를테면 청동기·초기 철기시대에서 원삼국시대로 넘어가는 시대구분의 경계에서처럼 외부 세계의 커다란 전환과 내부의 동기가 장기간 축적하게 되면 문화변동이 촉진되고 그 이후 시기의 문화는 그 이전과 성격을 완전히 달리하게 된다.

한 문화 안에는 변화를 촉진하는 동기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이전부터 있어 온 사고나 실천의 방식이 새로운 시도에 거슬러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저항하는 일도 있다. 전통적 사고나 이전의 물질적 경관과 같은 것이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이를테면 청동기시대 수백 년에 걸쳐 축조된 지석묘가 열 지어 있다면 다음 시기의 사람들이 목관묘라는 새로운 무덤을 축조할 때 그 이전 기념물적 분묘의 존재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무덤이란 어떤 것이어야 한다는 생각이나 지적묘에 묻힌 인물들에 대한 기억들이 다음 시대의 사람에게도 영향력을 행사했으리라는 점도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사실 이런 측면들에 관해 문화를 체계에 빚대어 설명한 이론들은 잘 다루지 못했다. 체계론적 관점이 환경의 변화, 인구의 증가, 식량 생산, 혹은 물품 제작기술과 같은 물질적인 요소와 기제가 서로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는 잘 설명하였지만, 이질적인 요소들 예컨대 사고나 문화경관의 의미와 같은 것이 앞서 말한 물질적 요소들과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변해가는지를 잘 생각할 수 없었다.

문화라는 것은 어느 한 시대와 지역에 한정된 물질문화 요소로 보는 것은 무리한 생각이다. 그리고 문화를 물질적 요소와 기제들에 의해 작동되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차라리 문화는 어떤 패키지와 같은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한다. 그것은 환경이나 생업과 같은 물질적인 것과 사고와 경관에 부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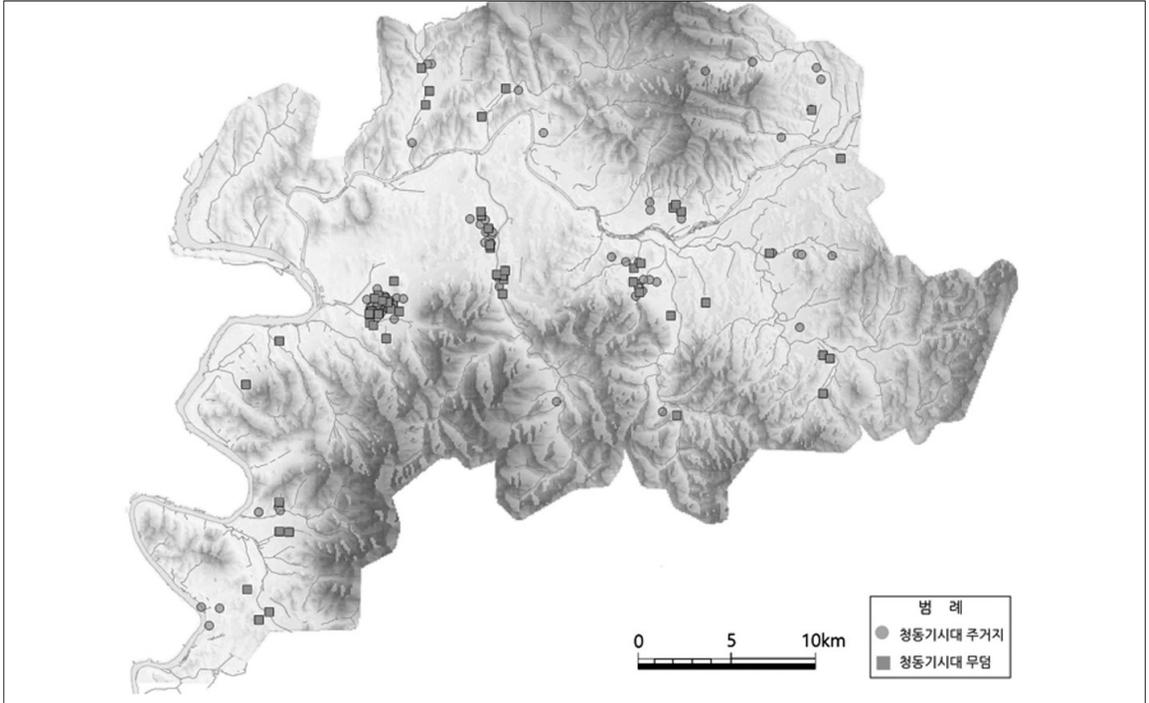
된 의미와 같이 비물질적인을 포괄하고 당시에 만들어지거나 축조된 것만 아니라 과거로부터 물려받은 것도 함께 포함하는 패키지와 같은 것이라고 보는 것이 어떨까? 이와 같은 복합적인 꾸러미로 생각하고 경산지역의 원삼국시대 문화에 다가간다면 설명이 쉬워질 것 같다. 여기서 또 하나 강조해 두어야 할 것은 경산의 원삼국문화는 하나의 단위체로 생각해서는 곤란하다는 점이다. 시간과 지역으로 한정된 특징적인 문화요소들로 정의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뜻이다. 여기서 논의의 대상인 원삼국시대에는 이미 한 제국이라는 중원의 고대국가 성립되어 있었고 그들의 직·간접적 개입이 주변 사회에 깊숙이 미치고 있었다. 한편 경산의 지역 집단은 진·변한 사회의 일원으로 원근의 집단 혹은 정치체들과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존속했다고 보는 것이 옳다. 말하자면 경산의 원삼국문화에 관해서는 그 내부의 조직과 특성으로 파악해나가는 접근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인접한 소국과 읍락들을 넘어 광역으로 연결된 관계망의 한 부분으로 파악하는 관점이 필요하다.

#### Ⅳ. 점유의 역사와 의례 경관의 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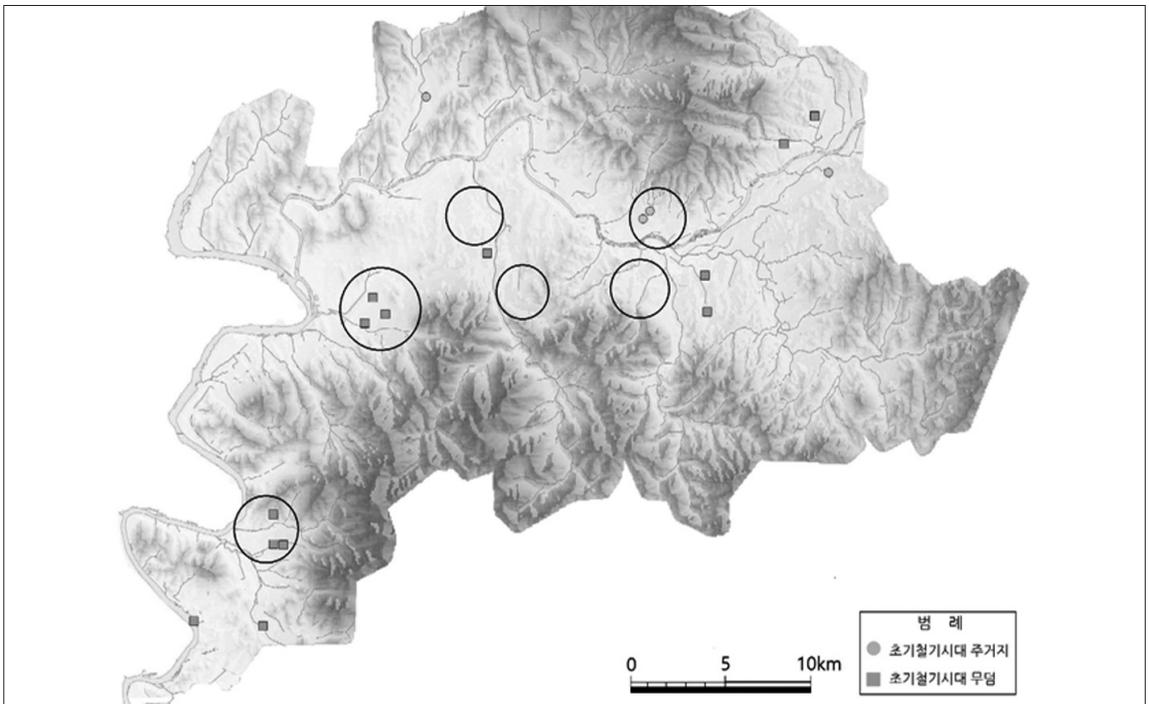
원삼국시대의 문화적 패키지 안에는 이 시대의 시작을 전후해서 새로 등장한 목관묘, 청동기와 철기, 와질토기, 한경 등도 있지만, 그 이전부터 존속해 온 청동기시대 지식묘와 초기 철기시대의 석관묘, 혹은 목관묘군, 환호로 둘러싸인 공간 등도 포함된다. 무엇보다 청동기시대 이래 이 지역에 살면서 의미가 부여되어 온 장소와 집단들 사이의 관계망과 교통로 등은 원삼국시대 소국과 중심지 형성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청동기시대 이래 경산을 중심으로 한 금호강 중하류에서 인간집단의 점유와 기념물 축조의 역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경산지역에서 시대별 점유와 문화경관 구축의 과정을 살피기에 앞서 각 시대 시간적 범위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흔히 지식묘는 청동기시대의 구축물이고 초기 철기시대는 세형동검묘 혹은 목관묘의 축조 시기로 이해되고 있다. 하지만 영남의 동남부 특히 검단리 문화권으로 갈수록 점토대토기 문화와 세형동검묘의 등장은 지체되고 무문토기 문화와 지식묘 축조는 늦은 시기까지 지속한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영남 동남부 권역에서는 초기 철기시대가 되어서야 기념물적인 묘역식 지식묘가 축조된다(이수홍 2007, 2020b; 우명하 2016). 그래서 이 지역 초기 철기시대 수장묘를 묘역식지식묘와 세형동검묘로 구분해 보아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이수홍 2020a). 경산지역은 검단리문화권 안에 포함되지 않지만, 무문토기 문화가 늦은 시기까지 존속하다 점토대토기가 유입되는 것으로 보이며, 이점을 고려하면 경산지역의 초기 철기시대로 상당히 압축적으로 전개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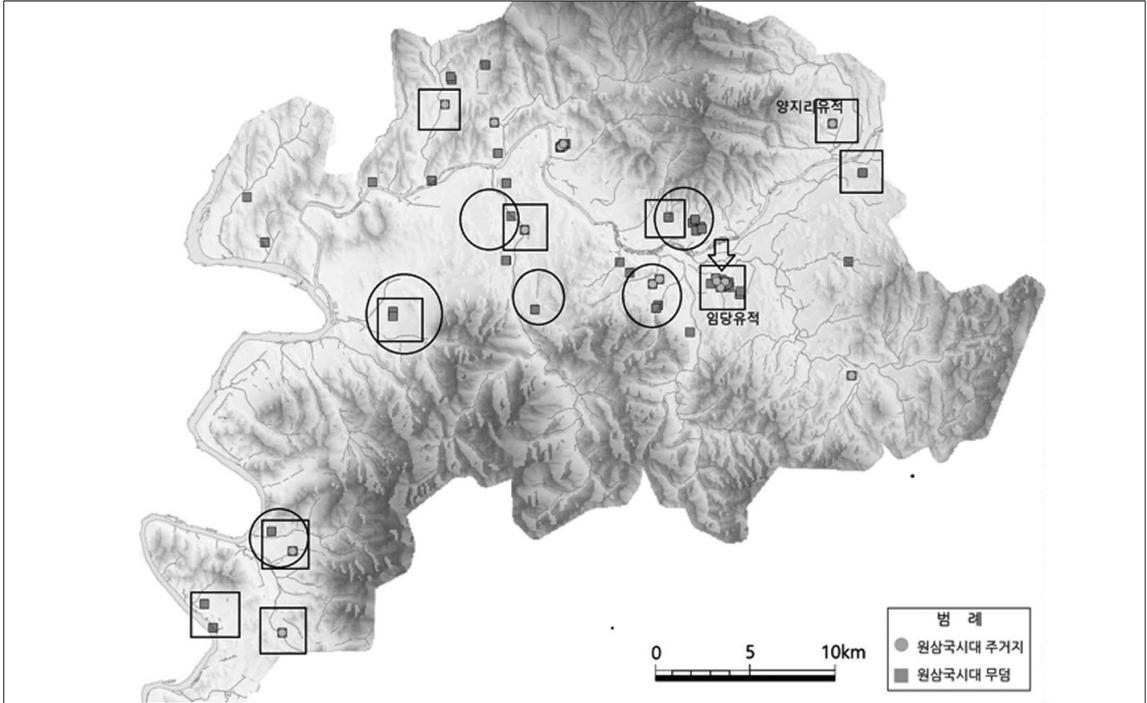
그림2~4는 금호강 중하류에서 발굴조사로 유적의 존재가 파악된 청동기시대부터 원삼국시대까지의 주거와 분묘의 분포이다. 문화재의 구제조사가 고고학적 발굴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한국고고학의 현실에서 유적의 분포 밀도는 개발과 비례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개발에 앞서 구제발굴이 이루어져도 유적이 없는 경우도 많으므로 개발이 유적 분포 자체를 좌우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발굴된 유적의 분포는 과거 인간 점유를 어느 정도



<그림 2> 청동기시대 주거(●)와 분묘(■)의 분포



<그림 3> 초기철기시대 주거(●)와 분묘(■)의 분포. ○의 범위는 청동기시대 유적이 집중적으로 분포된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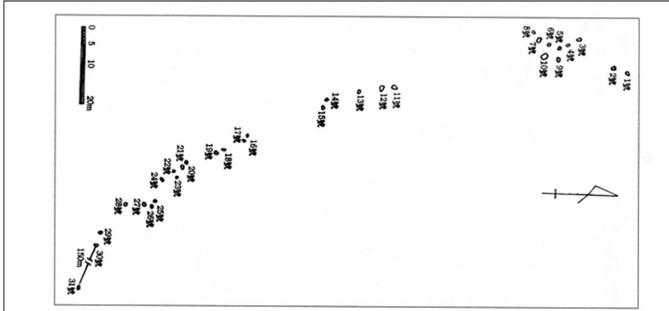


〈그림 4〉 초기철기시대 주거(●)와 분묘군(■)의 분포. ○의 범위는 청동기시대 유적이 집중적으로 분포된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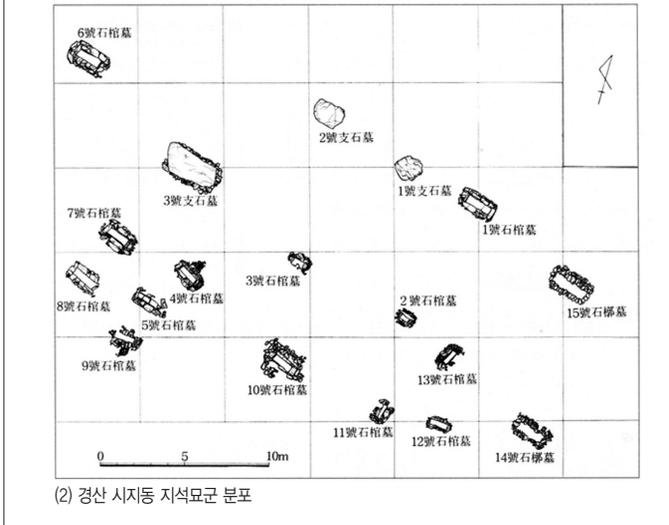
반영하고 있다는 전제 하에 시대별 점유의 양상을 검토해 보았다. 그림3과 그림4는 각각 초기 철기시대와 원삼국시대 유적의 분포인데 ○과 □으로 표시된 부분은 이전 시기까지의 주거와 분묘가 밀집 분포하는 영역이다.

그간 초기 철기시대 주거와 분묘가 들어서는 장소는 이전 청동기시대 유적의 분포와는 아주 판이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송국리문화의 절정기에는 인구가 증가하고 집주가 이루어져 하안대지와 낮은 구릉지의 마을이 대규모로 성장한다고 알려져 있다. 예컨대 진주 대평리와 부여 송국리 유적과 같은 거대취락이 송국리 문화기에 형성된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 절정기가 지나면 거대 취락들이 해체되고 새롭게 점토대토기의 마을이 형성된다. 이 과정에 관해 여러 연구자는 이 점토대토기 마을이 중소형으로 규모가 줄어든다는 점, 구릉정부의 높은 장소에 입지한 취락이 늘어난다는 점, 그리고 기존의 송국리 마을, 특히 거대취락의 분포구역과는 입지를 쉽게 공유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지적한 바 있다(林淳發 1993; 鄭仁盛 1999; 李亨源 2005, 2011; 宋滿榮 2011, 2013; 송중열 2015; 金承玉 2016). 이러한 취락유형의 변동을 생업경제의 차이에 기인한 현상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지만, 사회적 갈등이나 의례적 관계망의 형성과 같은 정치적 문제 때문이라는 주장을 적극적으로 펴기도 한다(李亨源 2005; 宋滿榮 2011).

하지만 금호강 중하류역에서는 사정이 상당히 달랐던 것으로 보인다. 물론 청동기시대 점유가 밀집된 곳에 초기 철기시대 주거나 분묘가 반드시 들어서는 것은 아니지만 이전의 점유지역을 피하지도 않았다. 청동기시대 주거와 기념물이 밀집된 진천천 일대 월배 산상지에는 초기 철기시대 분묘가 들어서고 역시 이전 시기의 유구가



(1) 경산 곡신리 지석묘군 분포



(2) 경산 시지동 지석묘군 분포

<그림 5> 경산 곡신리지석묘 상석열과 시지동 지석묘 소군집(김광명 2015)

묘군도 있지만, 그림4에서 보는 것처럼 초기 철기시대 점유구역에는 원삼국시대 유적이 반드시 들어서는 편이다. 임당유적은 초기 철기시대에 점유가 시작된 유적이는데 이후 원삼국시대 유구가 집중적으로 분포하는 경우에 속한다.

이상과 같은 금호강 유역에서 진행된 점유의 역사를 통해 다음과 같은 논의가 가능하다. 청동기시대 가장 현저한 문화경관인 지석묘는 처음 월배지역과 같은 넓은 선상지의 선단부나 천변 범람원의 자연제방을 따라 축조되었다고 한다(황상일 2017). 오랜 세월 축조가 진행되면서 지석묘군은 일정한 방향으로 열을 지어 분포하는 양상을 보이게 된다. 흔히 선형배치, 혹은 열상배치라고 하는 분포를 보이는데 1열로 단조롭게 배치되는 듯해도 그렇지 않다. 발굴을 통해 상석 아래 드러난 석관 혹은 석곽과 같은 매장시설의 분포를 보면 일정한 방식의 배열로 군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우명하 2017). 소규모로 매장시설의 군집이 형성되어 있으며(이때 모든 매장시설 위에 상석이 얹혀 있는 것은 아니다), 일정 거리를 두고 다시 군집이 만들어지는 방식으로 긴 지석묘 열이 형성되는 것이다.

그림5는 용성면 곡신리에 형성된 지석묘 상석 열과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시지동 제1 지석묘군의 상석과 매장

밀집 분포하는 신서동과 현풍읍 일원에도 점토대토기 주거와 분묘가 들어선다. 물론 금호강 하류의 신천 일원의 청동기시대 유적 집중 분포구간에는 초기 철기시대 유적이 들어서지 않는 것은 눈여겨 볼 만하다. 금호강 유역에서 초기 철기시대 유적은 청동기시대 이른 단계와는 잘 겹쳐지지 않지만 늦은 시기 유적의 분포와는 아주 높은 빈도로 겹쳐지는 양상을 보인다. 특히 의례의 장소에서 그러한 연결성을 발견할 수 있는 듯하다. 예컨대 경산 대학리유적에서는 청동기시대 늦은 시기의 모역식지석묘 주변에 청동기시대 매장시설을 그대로 유지한 석관묘가 축조되고 부장토기로 점토대토기가 출토된다(동북아문화재연구원 2018).

한편 원삼국시대 주거와 분묘는 이전 초기 철기시대 유적의 분포와 높은 상관성을 가진다. 원삼국시대 점유구역이 확대되어 새로운 입지를 선택한 주거와 분

시설의 분포이다. 즉 지석묘 하나하나가 열상으로 배치된 것이 아니고 여러 매장시설과 상석 몇 개로 구성된 지석묘 소군집이 일정 거리를 두고 배치됨으로써 일정 경관에 열상의 기념물이 조성된 셈이다. 지석묘군 형성과정에서 하나의 군집이 완성되고 다음 군집으로 넘어가는 방식으로 긴 선상의 기념물이 축조된 것이 아니다. 하나의 소공동체가 꽤 오랜 세월 동안 하나의 소군집을 만들어 냈다고 본다면 여러 공동체가 참여한 지석묘 건축의례의 반복을 통해 서로 다른 군집에서의 축조가 산발적으로 이어졌다고 보아야 한다. 그와 같은 축조의례의 장기적 과정의 결과가 천변 자연제방을 따라 길게 배열된 금호강유역의 지석묘군인 셈이다.

지석묘의 긴 열에는 축조에 참여한 여러 공동체의 기억이 장기간 퇴적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공동체의 구성원이었다가 묻힌 사람에 대한 기억을 소환해 낼 수 있는 장치이기도 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지석묘를 공동체적 의례의 결과물이라고 보는 견해는 타당한 듯하다. 장기간 축조의 반복을 통해 형성된 지석묘의 긴 열은 당시 교통로와 일치한다는 의견이 있다(김춘영 2015). 사실 과거나 지금이나 하천 변 자연제방은 교통로로 활용되는 지형이다. 열상의 지석묘군은 일상적인 교통로를 따라 걷는 주민들의 이동을 안내하고 그들에게 공동체의 역사를 반복적으로 기억하게 했을 것이다. 지석묘군은 사회적 기억의 장치이며 공동체의 역사와 정체성이 물질화되어 주민들의 사고를 안내하는 문화경관이었다.

청동기시대 늦은 단계가 되면 지석묘의 축조가 좁은 곡간 저지로 이동하게 된다. 경산 대학리의 묘역식지석묘군이 그러한 늦은 시기의 사례로 보인다. 입지는 변했지만, 공동체적 의례의 반복과 문화경관으로서의 물질성은 주민들에게 영향력을 잃지 않았다고 여겨진다. 이 묘역식지석묘군에 인접하여, 혹은 그것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면서 점토대토기 단계의 석관묘가 배열된다. 점토대토기 단계의 매장시설이라면 토광에 목관을 쓰거나 해야 하지만, 대학리의 것은 변형된 석관묘라고 해두어야 할 것 같다. 이처럼 점토대토기 단계의 주민이 묘역식지석묘 주변에 청동기시대적 석관묘를 배치하고 지석묘적 의례를 시도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는 묘역식지석묘가 반복해 온 공동체적 의례를 점토대토기 단계에도 지속해 갔다는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 청동기시대 중기의 송국리문화에서 후기 점토대토기문화로의 전환을 문화접변의 과정으로 설명한 연구에서 접변의 유형을 4가지 구분한 바 있는데(신영애 2011) 그에 따르면 이 변화는 융합형에 해당한다. 융합형이란 토착 집단이 외래 집단의 문화요소를 수용하는 과정이 되풀이되면서 토착문화의 성격이 크게 변화되는 과정을 뜻한다.

지석묘 축조사회의 종언과 점토대토기 사회의 형성에 대해 기초적 검토를 한 연구(鄭仁盛 1999)에서는 유물의 변화에 한정하지 않고 첫째, 두 집단의 공존과 상호관계, 둘째, 유적 입지패턴의 상이, 그리고 셋째, 대외교역망의 확장, 이 세 가지를 이 시기 변화의 중요 연구주제로 논의한 바 있다(鄭仁盛 1999). 두 집단의 공존과 상호작용, 그리고 입지패턴의 차이는 지역마다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 같지만, 대외교역망의 확장은 점토대토기 단계의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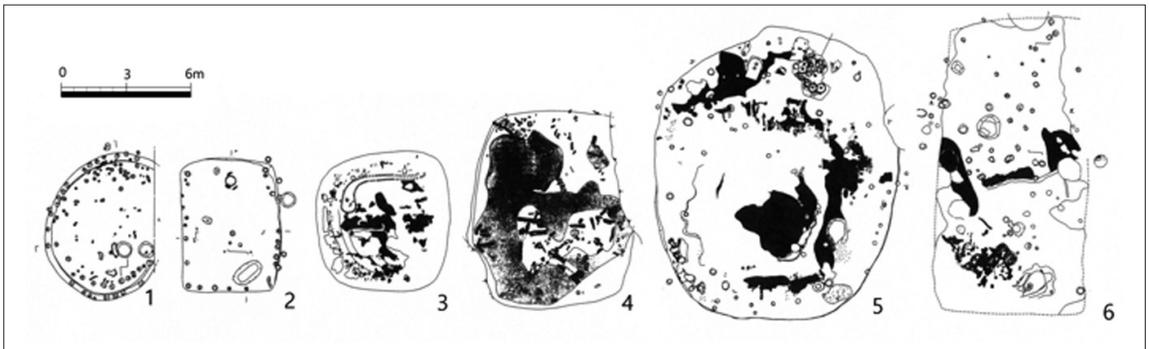
흔히 점토대토기 단계의 세형동검묘는 개인-지향 혹은 네트워크-모드로 작동되는 사회의 산물이고 지석묘는 공동체적 의례의 결과물이라고 한다. 점토대토기 사회는 엘리트 개인이 관계망을 넓혀 자신의 명성과 권위를 높이는 방식으로 정치권력을 확보하는 사회이며 세형동검유물군의 매장 의례와 부장양상은 그러한 사회의 권력을 물질화한 결과이다. 이에 비해 지석묘의 축조는 양호한 농경지를 배경으로 하여 오랜 점유를 통해 형성된 역

사와 기억을 일정 경관 안에 물질화한 것이며 지식모라는 물질적 양상을 통해 역사적 사건과 기억을 지속하게 된다(李盛周 2012). 대학리의 점토대토기 분묘 축조자들은 지식묘의 공동체적 기억과 역사를 존중하면서 변화를 시도해 갔던 것으로 보인다.

## V. 경산지역 국의 형성과 성격

임당유적은 압량소국의 중심지이다. 임당 구릉의 고총군이 경산 분지의 중심고분군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 이는 4세기 후반에는 제 기능을 했을 토성과 함께 국읍의 증거물이다. 시기를 더 거슬러 올라가 2세기 후엽부터 4세기 전반에 걸치는 목관묘 단계에는 I지구의 주거지들이 중심지적 성격을 보여준다(김경환 2015). I지구 주거지 가운데 대략 3세기에 속하는 가옥들에는 격벽이 내부 공간을 분할한 것도 있어 당대의 집자리 가운데서는 보기 힘든 구조이고 가옥의 면적이 당시 일반 수혈주거에 비해 3배 가량이나 넓다.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 기거했을 만한 가옥이다. 그 이전 목관묘 단계에 이미 임당 구릉이 중심지적 지위를 가진 유적이라는 증거가 제시되기도 한다(이희준 2004; 장용석 2012). 2중 환호로 둘러싼 장소, 그리고 가장 높은 분포 밀도를 보이는 목관묘군의 형성이 그 증거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과연 임당 구릉의 점유 초기부터 과연 경산 분지에서 소국의 형성을 말할 수 있고 임당유적을 국읍이라 할 수 있는가? 이에 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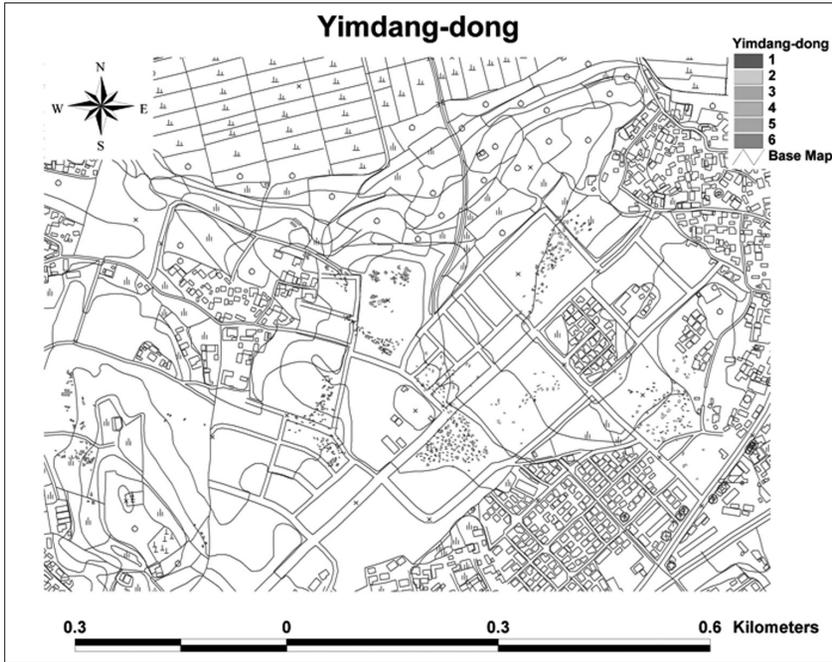
임당유적에서 가장 이른 유구인 2중 환호의 축조연대로 미루어 이 구릉에서의 인간 점유는 점토대토기 이른



〈그림 1〉 3세기대 영남지역 주거지의 비교:

1. 양산 평산리9호, 2. 양산 평산리1호, 3. 포항 호동 92호, 4. 포항 호동131호, 5. 경산 임당35호, 6. 경산 임당1호

단계까지 소급해서 볼 수 있다(김민철 2011). 그리고 뒤이어 임당구릉의 다른 지점에서 목관묘의 축조와 근집화가 진행된다. 성격이 다른, 이 두 가지의 점유는 어떤 관계이며 이것이 경산지역 소국 형성과 어떤 관계인가? 임당유적의 조사자는 이중 환호가 존속하던 2세기 어느 시점에 목관묘군이 형성되었을 것이라든가에 의견을 일치를 본다(장용석 2007; 하진호 2012). 환호 축조 시기에 공동작업을 위해 임당 주변의 4~5개 촌의 주민이 함께 노동을 했고(장용석 2012), 그만큼 수의 집단이 서로 다른 지점을 공동묘지로 점유했다고 본다(이희준 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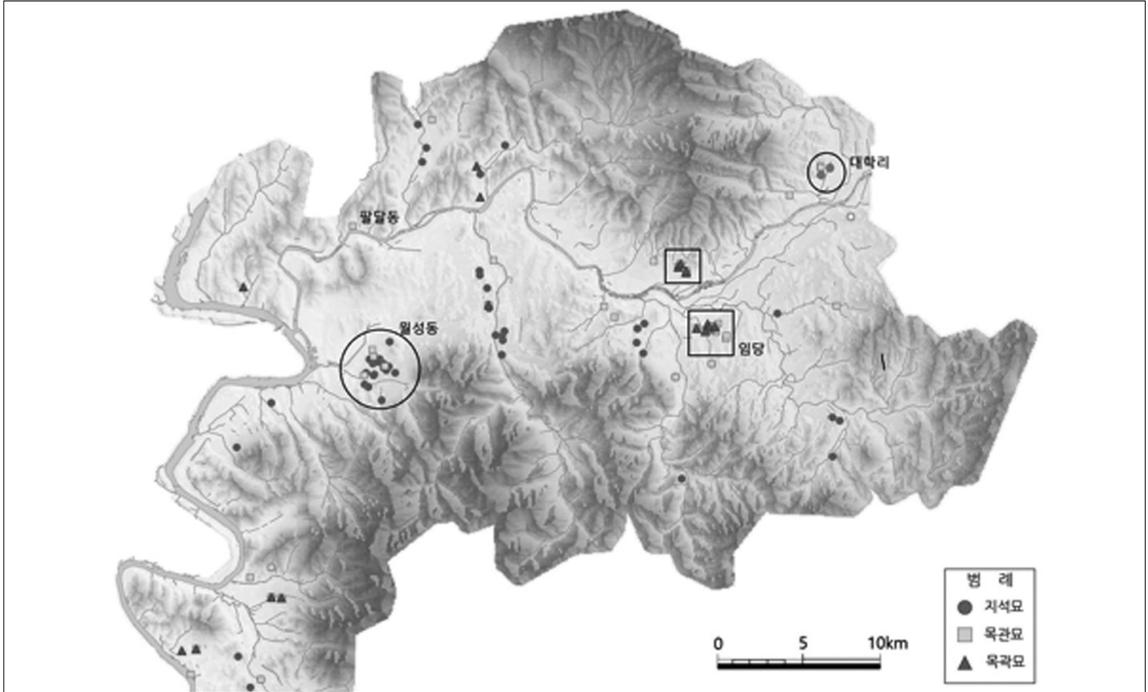
〈그림 7〉 임당 구릉지 발굴조사 유구의 분포(2005년 기준)

환호 사용 시기와 초기 목관묘군 형성 시기의 주거지는 임당 구릉이나 인근에서 발견된 바 없으므로 환호 축조집단이 목관묘군을 조성했다고 보고 그들이 인근에 거주했을 것이라는 해석은 어찌 보면 자연스런 추론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좀 더 깊이 있는 고찰이 필요하다.

우선 환호 사용 시기에 목관묘군이 형성되었는가 하는 문제가 검토되어야 한다. 임당 구릉에 목관

묘군이 들어서는 시점에 환호가 여전히 의미 있는 장소로 이용되었는가의 의문이다. 층위 자료로 보았을 때 환호가 매몰되어 의미를 상실한 이후 그 위로 원삼국시대 주거지가 들어서는 것은 2세기 중엽을 전후한 일로 보인다. 하지만 환호가 이 무렵까지 매몰되지 않고 사용된 것 같지는 않다. 연대를 좀 더 좁혀서 볼 수 있는 근거는 이층 환호의 매몰토에서 출토된 유물 가운데서 찾아볼 필요가 있다. 환호 매몰토에서는 와질토기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환호는 와질토기 발생 이전에 매몰되었다고 보아야 한다(김민철 2011). 또 하나의 근거는 환호 사용 시기에 폐기되었다가 뒤에 원삼국시대 6호 주거지 매몰토에서 발견된 검파두식이라 할 수 있는데 발굴자의 관찰대로 이 검파두식은 BC 1세기대 유물이다(김민철 2010). 따라서 환호의 폐절은 BC 1세기 중엽 이전 어느 시점에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목관묘 군집화의 시작을 서기전 1세기 후엽으로 본다면 그 시점은 이층 환호로 둘러싸인 공간이 의례의 장소로서 의미 있게 사용되던 시기에 해당된다.

앞서 언급한 경산지역 점토대토기 개시기의 매장시설은 세형동검유물군이 나오는 목관묘가 아니라 석관묘였다. 경산 대학리유적(경북문화재연구원 2018; 동북아문화재연구원 2019) 점토대토기 단계에 속하는 석관묘의 입지와 배치는 이전 지석묘의 공동체 의례를 이어가는 방식이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미 말한 바와 같다. 사실 금호강 유역에는 청동기시대 지석묘의 의례 공간에 초기 철기시대 세형동검-철기 유물군의 목관묘가 들어서는 사례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수백 년간 지석묘적 의례가 누적된 월배 선상지에 월성동 토광묘군이 들어선 사례를 들 수 있다. 물론 철기-세형동검 목관묘군이 청동기시대의 의례가 누적된 공간에 들어서지 않고 이전에 점유가 없었던 새로운 장소를 선정하여 입지하는 사례도 많다. 임당 구릉도 초기 철기시대 이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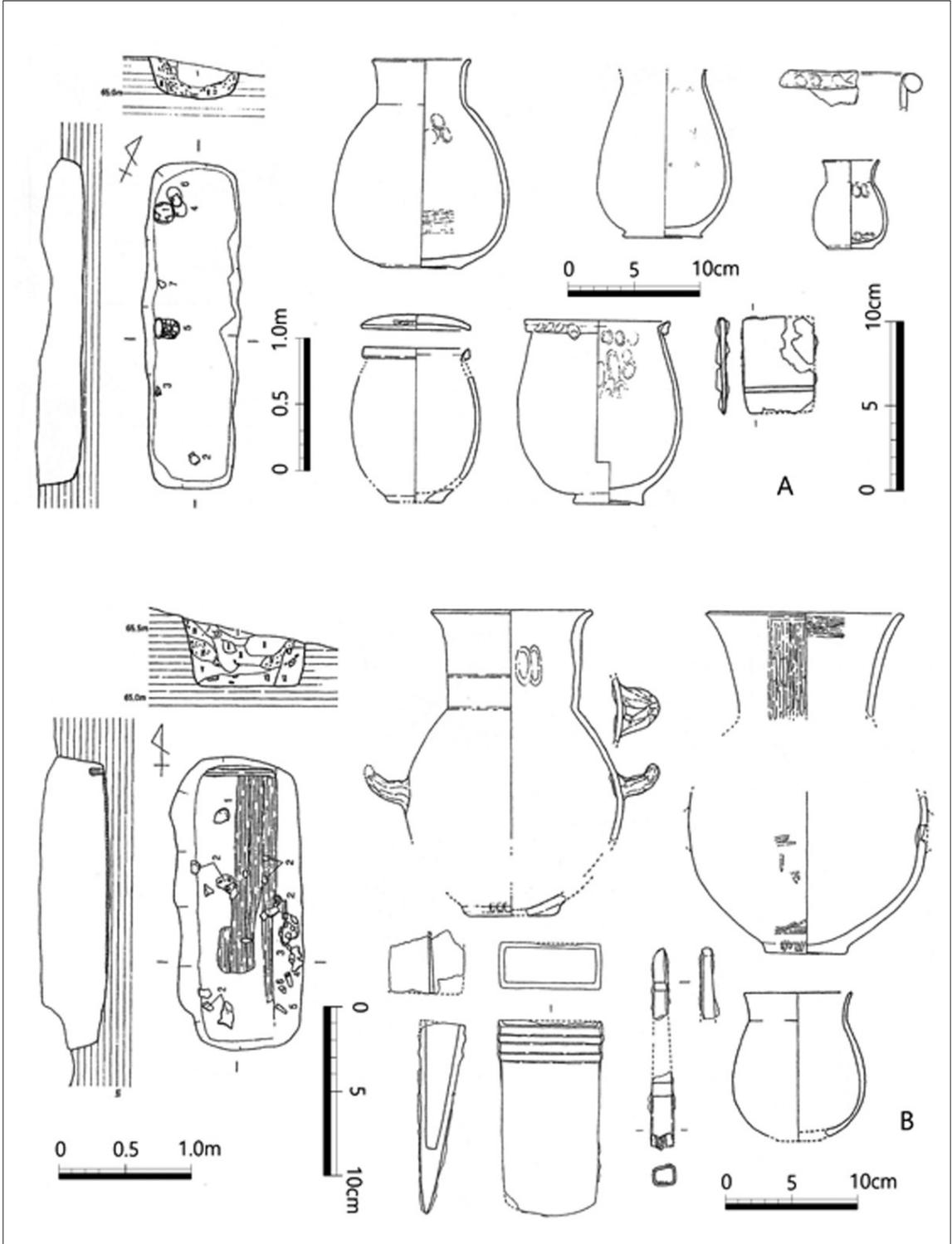


〈그림 8〉 금호강 중하류 청동기~원삼국 분묘군의 형성

에는 점유된 적이 없었다. 의례의 장소를 에워싼 이중 환호가 구축된 이후 일정 시간이 경과한 다음 목관묘군이 조성되기 시작했다.

청동기시대 의례가 집중된 곳에 들어선 점토대토기 분묘군은 이후 임당 유적과 같이 장기적으로 존속하면서 대규모 목관묘군으로 발전한 사례를 찾기 힘들다. 이런 점에서 임당유적의 형성은 분명 진변한 ‘國’과 그 중심지 형성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환호 성소라 할만한 의례의 장소를 조성하기 시작하는 것, 지석묘적 의례를 벗어나 새로운 배열방식을 취한 목관묘군의 조성, 초기 철기시대 이래의 관계망을 통해 유통되었던 청동기 및 철기, 한식 유물의 부장은 확실히 원삼국시대의 어셈블리지이다. 경산지역에서 이전의 점유가 없던 지역을 선정하여 새로운 의례의 장소로 마련된 곳이 임당 I지구 북편 구릉의 이중환호라고 할 수 있다. 이곳에서는 지석묘 의례와는 다른 관념과 방식의 제의가 반복되었을 것이고 그러던 가운데 새로운 조성원리를 구현한 목관묘군이 들어서게 된 것으로 이해된다.

그간 많은 연구자가 제안해 왔던 것처럼 경산지역 소국 형성과정에서 임당유적이 중심지에 해당한다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최근 임당 구릉과는 멀리 떨어진 금호강 북안의 양지리유적에서 발견된 1호 목관묘는 대단히 특출한 부장양상으로 인해 주목을 받았다. 양지리 1호목관의 위세품 부장양상도 그러하거나와 겹겹이 베풀어진 매장 의례의 절차는(김동숙 2020) 피장자가 매우 특별한 지위에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사실 지금까지 임당유적에서 발굴된 어떤 목관묘보다 풍부한 위세품과 복잡한 의례의 절차를 거친 수장묘이다. 물론 임당유적의 목관묘군이 전면 노출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별한 장소에서 양지리1호에 버금가는 수장급 목관묘가



〈그림 9〉 경산 임당 FII-33호 목관묘(A)와 FII-34호 목관묘(B)와 출토유물

확인될 가능성도 있다. 양지리 1호목관묘의 발굴이 경산지역 수장의 존재를 확인한 것은 분명하지만 소국의 중심지가 잠시라도 교체되었다거나 하는 논의는 의미 없다고 본다. 그보다는 해석의 관점을 달리해 보려는 시도가 필요하다고 본다.

진변한의 소국의 형성이나 국읍의 존재, 그리고 개별 읍락과의 관계 등을 유동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이성주 2017). 『삼국지』 위서 동이전이 전하는 진변한의 상태도 취락 위계의 어떤 체계가 잘 정립되어 있는 상태로 묘사하지는 않았다고 본다. 중심지가 있었기에 국읍의 존재가 기록으로도 남았지만, 그것의 물질적 상태가 그리 현저하지 않고, 우두머리의 존재가 분명하기에 그것을 적어 두었지만, 그들의 주거와 의복의 차이나 분리가 그리 심하지 않았던 상태를 『삼국지』는 그렇게 기록한 듯하다.

금호강 유역 목관묘의 위계(신영애 2017)와 위세품의 연구(방선지 2017)는 이 지역 목관묘 피장자들의 계층 분화와 그것을 표시하는 방식의 시기적 차이를 잘 보여준다. 목관묘의 위계는 대략 3등급 정도로 파악되는(정민 2012; 신영애 2017) 것처럼 보인다. 물품의 조합과 위세품의 비중을 고려한 해석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구분이 제도적으로 정립된 당시의 계층질서를 나타내 주는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는다(이성주 2017). 진변한 분묘(군)의 계층분화에 대한 분석적 검토에서도(이재현 2016)도 진변한 분묘군 대다수를 등급으로 나누면 대략 2등급으로 구분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3등급으로 나뉜다 해도 최고 등급에 해당되는 무덤은 많아야 한 고분군에서 3~4기이다. 차라리 필자는 무덤에 묻히지 않은 사람들을 생각해 봐야 한다고 본다.

결국 사회는 무덤에 묻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로 크게 나눌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그리고 목관묘에 묻힌 사람이 부장품의 질과 양으로 구분되는 것은 계층적인 것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피장자의 또 다른 인격성과 관련될 가능성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런 관점에서 진변한의 계층구조는 피라밋 형태로 묘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위가 넓게 잘린 사다리꼴 모양일 가능성이 크다(이성주 2017). 상하의 이동이 어려운 두 등급 정도의 계층이 존재하며 하층민이(무덤에 묻히지 못한 사람) 많고 상층민은(무덤에 묻힌 사람) 소수인 그런 사회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수장이 될 자격이 주어진 인물군이 있었다면 그것이 확고히 제도화되지 않았을 것이고 상층군에 섞여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인물군 안에서 주어진 여러 기회에서 성공을 하고 수장이 된다면 그의 죽음 뒤에는 매우 특출한 위세품을 사용한 복잡한 매장 의례가 베풀어졌을 것이다. 수장으로 될 수 있는 인물군은 경산지역 여러 지역 집단 안에서 나올 가능성이 크고 그것이 임당 출신이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었을 가능성이 크다. 양지리 집단의 상위 계층에서도 분명 수장에 오를 수 있는 인물군이 있었고 그들의 명성도 경산지역에 널리 퍼져 있었을 것이다.

## Ⅵ. 맺음말

이상 경산지역 원삼국시대 소국형성 과정에 관하여 간략한 검토를 시도해 보았다. 이 글을 통해 소국의 형성 과정을 논의하기에 앞서 한 시대에 개발된 것, 그리고 눈에 띄는 물질적인 것만을 그 시대의 문화 패키지로 볼 것이 아니라 이전 시대부터 누적된 관념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보았다.

※ 후기: 발표문 작성에 필요한 도면을 정리해 주신 방선지님께 감사드립니다.

## 참고문헌

-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2018, 『경산 대학리 51-1번지 유적』,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 김경환, 2015, 「원삼국~삼국시대 경산 임당 1지구 주거지 연구」, 『嶺南文化財研究』28, 영남문화재연구원, pp. 171-207.
- 김권구, 2012, 「청동기시대-초기철기시대 고지성 환구(高地性 環溝)에 관한 고찰」, 『韓國上古史學報』76, pp. 51-76.
- 김대욱, 2020, 「경산 임당 유적 내 목관묘 발굴과 그 성과」, 『목관묘로 본 사로국과 신라: 유적 사례 발표』,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pp. 116-131.
- 김대환, 2012, 「임당유적 묘제의 신라화와 전통의 창조」, 『嶺南文化財研究』25, 영남문화재연구원, pp. 73-101.
- 김민철, 2010, 「나. 출토유물에 대한 검토」, 『慶山 林堂洞 環濠遺蹟』, 영남문화재연구원, pp. 187-211.
- 김민철, 2011, 「林堂丘陵 環濠의 年代와 性格」, 『慶北大學校考古人類學科30周年紀念考古學論叢』, 大邱: 慶北大學校出版部, pp. 211-246.
- 김민철, 2020, 「진·변한 소국과 경산 양지리 1호 목관묘」, 『땀다! 지배자 새로 찾은 이천 년 전 경산 양지리 날무덤』, 2020년 국립대구박물관 테마전, pp. 84-86.
- 김승욱, 2016, 「만경강유역의 점토대토기문화의 전개과정과 특징」, 『한국고고학보』99, pp. 40-77.
- 김용성, 1996, 「林堂 1A-1號墳의 性格에 대하여」, 『碩晤尹容鎮教授停年退任紀念論叢』, 碩晤尹容鎮教授停年退任紀念論叢刊行會: pp. 311-343.
- 김용성, 2000, 「임당유적 분묘와 축조집단」, 『압독 사람들의 삶과 죽음』, 국립대구박물관, pp. 140-153.
- 김준영, 2015, 「支石墓 分布를 통해 본 南海岸 各 地域의 交通路」, 『牛行李相吉 教授 追慕論文集』, 이상길교수추모논문집간행위원회, 서울: 진인진, pp. 174-95.
- 동북아문화재연구원, 2019, 『경산 대학리 · 교리유적』, 동북아문화재연구원.
- 류지환, 2010, 「대구 진천천 일대 청동기시대 취락 연구」,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순발, 1993, 「漢江流域의 靑銅器 · 初期鐵器文化」, 崔夢龍 外, 『한강유역사』, 서울: 민음사, pp. 115-223.
- 방선지, 2015, 「원삼국시대 목관묘의 부장유물」, 『금호강유역 초기사회의 형성』,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학술총서1, 서울: 학연문화사.
- 방선지, 2019, 「사로국의 위신재 구성과 특징」, 『목관묘로 본 사로국의 형성과 전개』,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pp. 52-59.
- 성림문화재연구원, 2019, 『경산 하양(무학)지구 택지개발사업부지 내 慶山 陽地里 遺蹟』, 성림문화재연구원.
- 송만영, 2011, 「中部地方 粘土帶土器 段階 聚落 構造와 性格」, 『韓國考古學報』80, pp. 29-61.
- 송종열, 2015, 「만경강유역 점토대토기문화의 정착 과정」, 『湖南考古學報』50, pp. 52-69.
- 신영애, 2011, 「嶺南地方 粘土帶土器 段階 文化接變」,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영애, 2015, 「원삼국시대 목관묘」, 『금호강유역 초기사회의 형성』,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학술총서1, 서울: 학연문화사.
- 우명하, 2016, 「영남지역 묘역지석묘 축조사회의 전개」, 『嶺南考古學』75, pp. 5-36.
- 우명하, 2017, 「금호강 하류역 지석묘의 변천과 성격」, 『대구 · 경북의 지석묘 문화』, 영남문화재연구원, pp. 31-47.
- 이성주, 2015, 「I 총설: 초기철기 · 원삼국시대」, 영남고고학회 편, 『영남의 고고학』, 서울: 사회평론, pp. 221-227.
- 이수홍, 2007, 「東南部地域 靑銅器時代 後期의 編年 및 地域性」, 『嶺南考古學報』40, pp. 27-50.
- 이수홍, 2020a, 「영남지역 수장묘의 등장과 사회상」, 『嶺南考古學』86, pp. 259-276.
- 이수홍, 2020b, 「경주지역 지석묘 사회의 종말」, 『경주의 청동기시대 사람과 문화, 삶과 죽음』,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pp. 114-129.
- 이재현, 2016, 「진·변한사회의 계층분화 과정과 양상」, 『辰 · 弁韓 '國'의 形成과 發展』, 제25회 영남고고학회 정기학술대회, pp. 87-107.
- 이재홍, 2009, 「경주와 경산지역의 중심지구 유적으로 본 4~5세기 신라의 변모」, 『韓國考古學報』70, pp. 156-191.
- 이형원, 2005, 「松菊里類型과 水石里類型의 接觸樣相」, 『湖西考古學』12, pp. 15-33.
- 이희준, 2004, 「경산 지역 고대 정치체의 성립과 변천」, 『嶺南考古學』34, pp. 5-34.
- 장용석, 2007, 「임당 유적을 통해 본 경산지역 고대 정치체제의 형성과 변천」, 『야외고고학』3, pp. 43-85.
- 장용석, 2008, 「4世紀 新羅의 土城築造 背景-達成과 林堂土城의 例를 통하여-」, 『嶺南考古學』46, pp. 5-31.
- 장용석, 2012, 「考古資料로 본 林堂 中心邑落의 諸 樣相」, 『嶺南文化財研究』25, 영남문화재연구원, pp. 133-155.
- 장용석, 2016, 「林堂土城 築造에 따른 취락공간의 再編」, 『韓國考古學報』101, pp. 90-123.
- 정민, 2012, 「임당유적 목관묘 축조집단의 성격」, 『嶺南文化財研究』25, 영남문화재연구원, pp. 72-37
- 정인성, 1998, 「낙동강 유역권의 細形銅劍 文化」, 『嶺南考古學報』22, pp. 1-74.

- 정인성, 1999, 「支石墓文化에서 細形銅劍문화로의 移行」, 『제22회 한국상고사학회 학술발표회』, 전환기의 고고학Ⅱ, pp. 47-87.
- 채상훈, 2019, 「사로국과 주변지역과의 관계」, 『목관묘로 본 사로국의 형성과 전개』,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pp. 62-81.
- 하진호, 2012, 「林堂遺蹟 聚落의 形成과 展開」, 『嶺南文化財研究』25, 영남문화재연구원, pp. 103-131
- 하진호, 2012, 「林堂遺蹟 聚落의 形成과 展開」, 『嶺南文化財研究』25, 嶺南文化財研究院, pp. 103-131.
- 한빛문화재연구원, 2018, 『임당토성』, 한빛문화재연구원.
- 황상일, 2015, 「청동~원삼국시대 지형 및 지질」, 『금호강유역 초기사회의 형성』,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학술총서1, 서울: 학연문화사, pp. 17-44.